

동네 사랑방 된 ‘산골미술관’ 아트공유...스무살 청년 됐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 주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까지 감당하면서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산골미술관이 올해 스무살 청년이 됐다.

전남 영광군 불갑면과 함평군 해보면 경계에 있는 불갑산의 자락이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지점인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376번지 소재 잠월

900여명의 대지에 80여명의 단층건물로 45평의 전시실 외에 학예실과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 등 아담한 사이즈의 미술관이지만 작가지원과 연례전, 지역연계전, 국제작가교류 등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관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산골의 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또 미술관이 자리한 산내리는 65세 이상의 어

산골미술관으로 꾸준한 전시와 행사, 프로그램, 체험 학습 등을 다채롭게 열어오면서 스무살을 맞아 비운의 천재 화가, 고독한 농부 화가, 현대풍속화가로 불리는 전남 진도 출생 석현 박은웅 화백(1944~2008)의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는 오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개관 20주년의 의미를 아로새길 예정이다.

‘가족 사랑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전시에서 만날 석현의 작품은 그가 구사했던 치열한 예술정신에 기반한 적목법이라는 독특한 화법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남도 문인화백의 전통적 화풍을 뛰어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창의적 작업을 펼쳤다. 전남 화순 남면 두강마을에서 작업을 펼치던 석현의 작품세계는 말년에 굵고 거친 선과 여백을 짙게 채운 구도, 원근감을 무시한 작품 속에 삶의 터전인 화순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사는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 가족들과의 단란했던 모습을 담은 정감 어린 세계가 두드러졌다. ‘스승같은 화가’라고 불렸던 석주 박종석 작가는 ‘검은 고독-푸른 영혼’이라는 평전을 출간해 석현의 삶과 정신을 조명할 바 있다.

김광옥 관장은 “개관 20주년을 맞는 동안 알찬 전시와 이벤트를 통해 예술 체험과 감동을 맛볼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사랑방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석현의 삶과 그의 작품을 되돌아보면서 당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 가을빛이 아름다운 잠월미술관 정원으로 관람객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김광옥 관장

함평 잠월미술관 올해 20주년 맞아 기념 전시

2006년 문 연 이후 문예거점 역할 수행 노력

석현 박은웅전 13일부터...작가지원 등 지속

미술관이 그곳으로, 당시 부부 미술교사였던 한국화가 김광옥씨와 임혜숙씨가 사비를 들여 건립한 뒤 2006년 10월 14일 문을 열었다. 문화시설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산골에 개관한 지 올해로 스무살 청년을 맞은 것이다.

‘꽃과 나비’전을 개관 기념전으로 해 매해 네다섯 차례의 전시 및 체험 학습을 진행,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미술관 명칭인 ‘잠월’은 이 일대 마을이 오래전부터 누에를 쳐오던 곳인데다 뒷산의 형국 또한 누에가 꿈틀대는 형상이고, 터를 잡기 위해 풍수를 보던 날 밤 미술관 앞 멀리 보이는 불갑산 쪽에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던데서 붙여졌다 는 설명이다.

르신 15여명 남짓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우리 마을 산내리’전을 통해 할머니들의 회화작품을 선보였으며, 산내리 청춘학당을 열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을 통해 문집(시집 2권)을 출간하는 등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임소문을 타고 잠월미술관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MBC 무한 도전(‘은혜같은 제비’편), KBS 인간극장(‘산내리로 간 미술관’), KBC 광주방송 테마스페셜(‘산내리 청춘학당’), 목포MBC 뉴스매거진(뉴스인 잠월미술관 김광옥 관장), KBS 문화산책 포플러 테마문화산책(‘산내리 학당’) 및 생생3도(‘산내리 마을 꽃단장 하는 날’) 등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잠월미술관 전경

세계 최고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 광주 무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 슈퍼클래식’ 마련
11월 7일 극장2서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이하 ‘전당재단’)은 오는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ACC 슈퍼클래식 ‘게리 호프만 첼로 리사이틀’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첼리스트의 첼리스트’라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게리 호프만’(Gary Hoffman)이 평생 탐구해 온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1~5번)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다. 이는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전곡 연주로, 호프만의 예술세계를 집약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호프만은 15세에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카네기홀, 파리 샹젤리제 극장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연주하며 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는 북미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클래식계에서 존경받는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무대에는 그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이자 섬세한 해석으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셀리그(David Selig)가 함께 오른다. 두 거장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호흡과 풍부한 해석을 통해 관객들은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ACC 슈퍼클래식’은 세계적 거장들의 연주를 국내 무대에서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로, 광주·전남 지역 관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무대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 관람권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창립 25주년 기념전

14일까지 예술의전당...24명 출품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 설상호)는 협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4일 개막, 오는 14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기획전을 갖는다. 출품작은 총 24점.

‘빛이 흐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수채화를 단지 하나의 표현 기법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삼아 온 이들의 깊은 몰입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전시에는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소속 수채화 작가 24명이 참여했다.

2001년 창립 준비전을 시작으로 매해 기획된 정기전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뿌리를 견고히 다지며 굳건한 예술의 가치를 뽐내 나가고 있다.

출품 작가로는 전문위원인 조진호 작가, 이장한 작가와 협회소속의 김근희·김수옥 작가 등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성상 물과 안료의 우연성이 강한 매체로 통하는 수채화 작품의 다양성을 조울할 수 있는 동시에 화면 위의 우연을 필연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작가들의 감각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대해 “물과 색이 모든 감각을 열고 그 흐름과 마주하며 마치 한 편의 서사처럼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용 인터넷기자 djawodyd0316@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동행 지역상공인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 (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배변,배설,간호,물리치료,노년영양관리,노년심리상담)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아침체조(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 (물리치료)